美 대선 막오른 본선

한반도 정책 격변 예고

매케인 "한미동맹이 최우선" 오바마 "김정일은 대화상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흑백대결을 펼칠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관계**=매케인은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매케인은 최근 '우리(한미)의 동맹을 최우선 순위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대통령이 되면 전통적인 한미 양자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임을 밝혔다.

매케인은 당시 기고문에서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고 국제시장을 개방하고 활성화하며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이루는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아시아에서 다자구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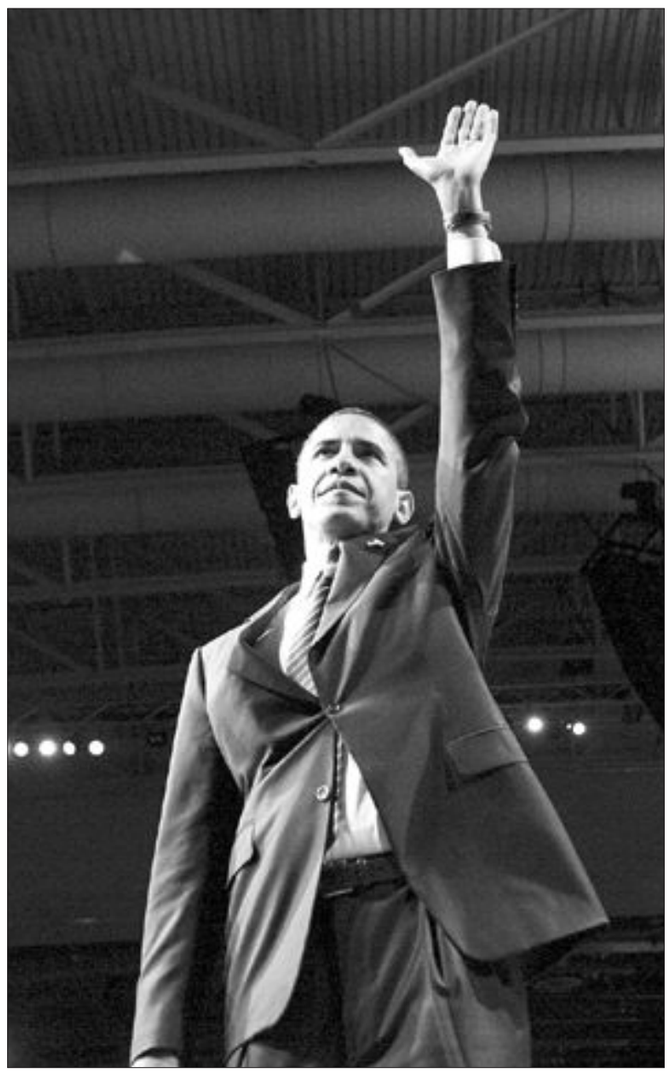
오바마는 대선공약에서 북핵 6자회담처럼 양자관계 및 정상회담을 능가하는 효과적인 외교의 틀을 형성, 아시아에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매케인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종식이 미국의 중대 관심사라고 규정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매케인은 또 핵프로그램 폐기가 단순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핵 등 핵확산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바라보는 눈**=매케인의 눈에 비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독재자'다. 또 독재자와의 조건없는 협상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게 매케인의 시각이다.

반면 오바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로 간주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없이 협상테이블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4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이스라엘 공무위원회(AIPAC)' 정책회의에서 연설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 8군사령부 하와이 이전

개편안 윤곽 … 전투·작전수행 기능도 부여

수년 전부터 추진돼온 주한 미 8군사령부의 개편안이 5일 윤곽을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인사와 군수, 정비 등 행정지원 기능 만 수행하고 있는 미 8군을 전투·작전수행 부대로 바꾸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즉 양국이 정보수집과 지휘통제체제(C4I), 작전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력, 장비 등을 보강해 유사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8군을 변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육군이 주축인 8군(2사단 등 예하부대 포함) 1만9천여명과 공군 9천여명, 나머지 해군·해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8군사령부 인력은 150여명에 이른다. 특히 전투·작전기능 강화를 위해 8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하는 대신 별도의 전투조직을 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현재 행정사령부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미 8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실상 몸통(8군사령부)은 하와이로 가지만 머리와 심장은 한국에 남아 있는 등 오히려 전투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사령부가 하와이로 가더라도 대신 전투·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전방전투지휘소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전방전투지휘소는 정보와 작전·지휘통제 인력을 비롯, 실제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 기능이 보강되는 일종의 전투작전 수행조직을 말한다.

미측은 현재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육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자리로 8군사령부를 옮겨 한국의 OCPK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1군단을 그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2010년께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KORCOM)와의 지휘체계가 훨씬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한국합동사령부와 미 한국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주도적 작전(한국)-지원(미국)'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되는 OCPK를 누가 지휘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US KORCOM이 한반도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사령부급 상위부대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어 작전상의 통제를 받게 되지만 지휘권한은 8군사령부에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한미 FTA, 오바마는 반대 매케인은 찬성

미국의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주요 정치와 정책 현안들이 대선정국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한미양국의 최대 경제현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다.

11월4일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원 의원 전원, 상원의원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한미 경제의 최대현안인 한미FTA에 결함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가 갈수록 FTA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선 승리를 필요한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바마로 정해졌지만 대선 본선으로 가면 갈수록 공화당과의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FTA에 대한 반대도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기조를 같이하면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 대선 후보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매케인이 대선에서 이기게 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상대로 FTA를 관철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미FTA 비준동의 문제는 대선정국의 소용돌이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면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이 끝나기 전에 한미FTA가 미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힐러리, 오바마 지지 선언

내일 워싱턴서 당 단합 행사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7일(현지시각) 경선 포기 선언과 함께 버락 오바마 후보 지지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힐러리 선거운동본부가 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들은 힐러리 후보가 6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어 경선 캠페인의 중단과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힐러리 진영은 곧바로 행사 개최일을 7일로 정정해 확인하는 성명을 냈다.

힐러리 선거운동 캠프의 공보책임자인 하워드 울프슨은 "클린턴 상원의원이 워싱턴 D.C.에서 행사를 열어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오바마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당의 단합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많은 클린턴 의원의 지지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개최일자를 7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서 힐러리는 후보지명전 과정에서 대결 양상을 보였던 민주당원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도록 대선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힐러리 캠프의 이러한 발표는 후보 지명을 위한 5개월간의 경쟁을 사실상 종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